

# 7

# 하나뿐인 지구

◆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.



공익 광고가 전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.

2019 대한민국 공익광고협의회

**쓰는 물이 많으면,  
먹는 물이 부족해집니다**

지구 전체의 물 중 70%만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며,  
가정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물은 1%의 수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 
물줄 절약하세요.

kobaco®  
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

**돈이라면  
남기시겠습니까?**

**음식도 결국 돈입니다**

먹는 게만 남았는 게면,  
그렇게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 
한 배에 두 배의  
손실을 쓰러기를 뜻하는 일  
나 튀어넘어 잘 만들어 사주세요.

kobaco® 한국방송광고공사  
공익광고협의회

**일회용 나무?**

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은 일회용이지만  
종이컵의 원료가 되는 나무는 20년을 자라야 합니다.  
우리와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한 배에 약 100개의 종이와  
1만 2천개의 이산화탄소 배출, 나무 4,000개 그릇을 살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.  
일회용을 사들 줄이기, 언제든 다시와 주세요.

kobaco®  
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

**쓰면 쓸수록  
숲이 지워집니다**

승용차를 한번 이용할 때 나오는  
CO2의 양은 약 4kg(당.리터 100ml x 1리터)  
1리터 당 100개의 종이컵을 생산해 숲이 사라지게 된다고  
일부업체 한번,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!  
자연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.

kobaco®  
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

## 물 스트레스 국가

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1700톤 이상이면 물 풍요 국가, 1000톤~1700톤이면 물 스트레스 국가, 1000톤 이하이면 물 기근 국가로 분류합니다.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‘물 스트레스 국가’에 해당합니다. 그런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도 흐르고 비도 많이 오는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

그 이유는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다른 계절에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현상이 흔히 일어납니다. 게다가 작은 나라에 인구가 많아서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즉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차 줄고 있고 여기에 가뭄까지 더해지면 물은 더욱 부족해집니다.

다음의 표는 우리나라 물 사용량을 나타낸 것입니다. 1965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인구는 1.5배 정도 늘었지만 물의 사용량은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.

구분 \ 연도	1965년	1980년	1990년	1998년	2020년
물의 총량	1100	1140	1267	1276	1276
물 사용량	51.2 (4.6%)	153 (13.4%)	249 (19.6%)	331 (26%)	381 (29.8%)
인구(명)	3천 3백만	3천 8백만	4천 3백만	4천 5백만	5천 1백만

2020년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280리터로 이는 유럽 사람들과 비교해 약 2배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. 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, 2020년에는 연간 4.4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. 앞으로 물을 아끼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사용한다면 언젠가는 물 스트레스 국가가 아닌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대비하려면 물 사용량을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합니다.

그렇다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? 점차 심각해져 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(UN)도 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

1992년 11월, 제47차 유엔(UN) 총회에서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3월 22일을 ‘세계 물의 날’로 정했습니다.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3월 22일부터 매년 ‘물의 날’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또한 유엔(UN)은 물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003년을 ‘세계 물의 해’로 정하기도 했습니다. 유엔(UN)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 10명 중 3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일 약 1천 명의 어린이가 깨끗한 물만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 설사병 등의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.

우리나라도 앞으로 다가올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물 절약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





1 「물 스트레스 국가」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1 '물 기근 국가, 물 스트레스 국가, 물 풍요 국가'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 인가요?

[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]

2 유엔(UN)에서 '세계 물의 날'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[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]

3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?

[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]

2 「물 스트레스 국가」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.

[Green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four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]

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.

보기 기근 풍요 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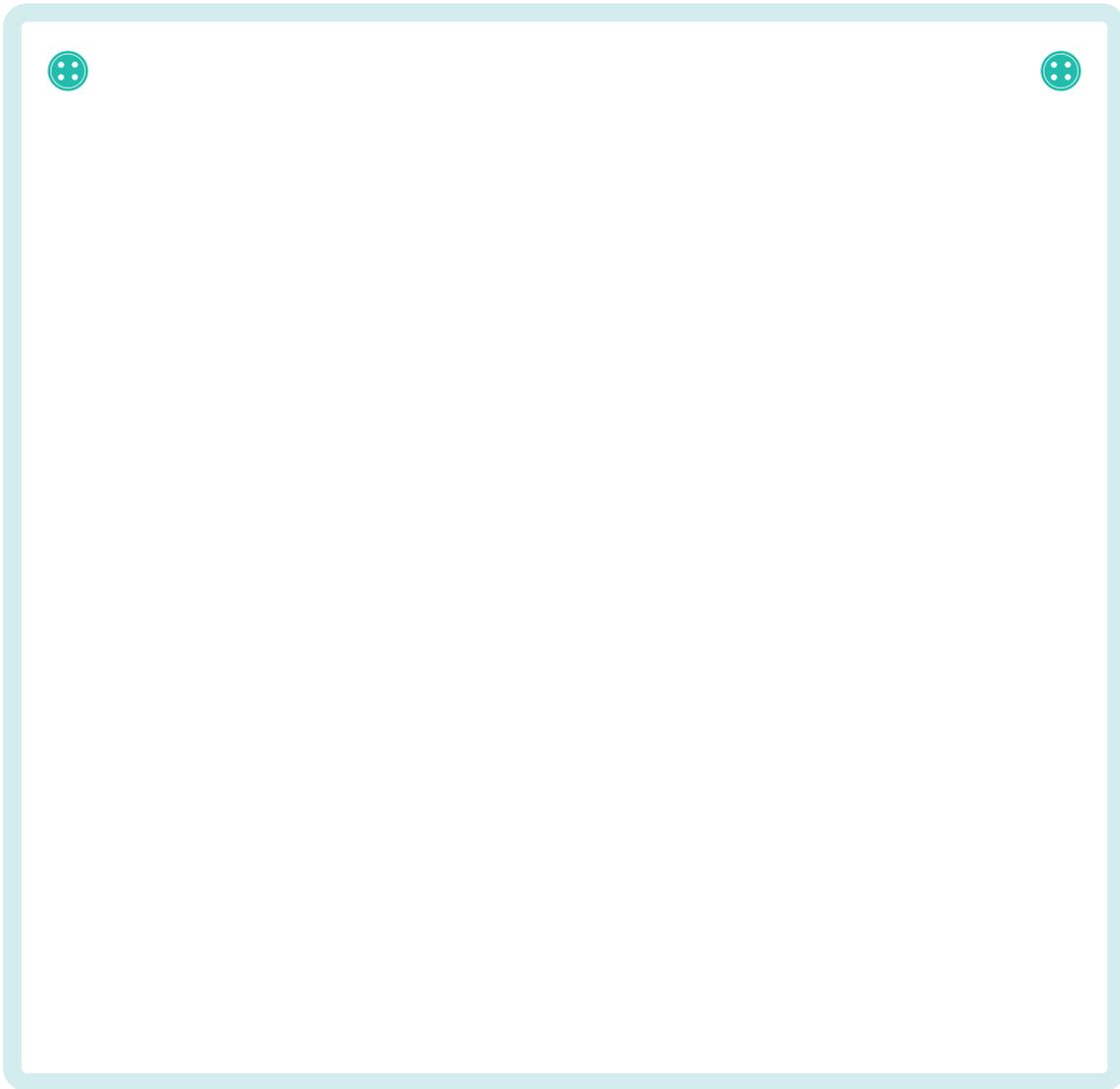
- 많아서 넉넉한 것을   (이)라고 한다.
-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는 것을   (이)라고 한다.
-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을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  (이)라고 한다.

4 다음 글을 읽고 물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.

‘스마트 워터 그리드’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?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미래 물 부족을 대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강물이나 빗물, 지하수 이용, 오염된 물 처리, 바닷물 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.

도시 전체의 물 사용량을 예측하고 물의 사용량과 공급량을 조절해 물을 절약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비나 눈이 왔을 때, 물을 새지 않게 모아두었다가 실시간 네트워킹과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보냄으로써 물 낭비를 없애는 기술입니다.

5 공익 광고에 제시된 문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, 해결 방안을 알리는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.



배움 다지기

●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나요?

